

回顧三十年

秦弘燮

1.

1960년 8월 15일 「考古美術同人會」라는 모임이 결성된지 어언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니지만 「韓國美術史學會」로서는 감회 깊은 역정을 거친 긴 시간이었다. 이 모임을 결성하고 同人誌를 내기 시작한 소위 創刊同人들(金元龍·全鏊弼·秦弘燮·崔淳雨·洪思俊·黃壽永)이 10년이 되지도 않은 동안에 澗松(全鏊弼)이 가고 20년이 채 안 되어 然齋(洪思俊)가 갔고 30년이 된 지금에는 또 兮谷(崔淳雨)이 갔다. 創刊同人 6명중 세 분이 세상을 떠나서 격세지감이 없지 않으며 3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로 창간 당시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世代 또한 교체되어 30년이 1세대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창간 당시 同人들의 연배는 澗松과 然齋가 50대이고 나머지가 40대였으니 지금 韓國美術史學界에서 주축을 이루는 층이 바로 그 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동안의 歷程을 돌아보기 위하여 붓을 들면서 1세대전의 視角이 과연 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또 理와 知가 軸을 이루어야 할 학문세계에 관한 문제에 자칫 情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선다.

「韓國美術史學會」는 몇번의 전기를 거쳐왔지만 지금의 韓國美術史學界는 전공학도의 증가, 연구방향의 광역화, 연구방법의 심층화 내지는 연구분야의 다분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하여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고 있다. 이같이 넓어지고 깊어진 우리나라 美術史學의 분야에서 「韓國美術史學會」는 무엇을 기여했으며 앞으로의 전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2.

“其時其時 過眼하는 如斯한 資料는 勿論 새로 發見出世하는 遺蹟 遺物들을 간단한 메모로서 記錄에 남겨두어 現在는 勿論 將次 이 方面 研究의 資料로 保存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考古美術」創刊號에 실린 創刊辭였고 또한 同人會 창립의 목적이자 목표이기도 하였다. 同人會를 창립한 1960년이라는 시점은 6·25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어 학문세계가 차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나 考古學·美術史學에서 절대로 필요한 자료가 원래 零細한데다가 전화로 인하여 파괴되고 인위적으로 손상을 입어 자료의 부족을 절감하던 때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 考古學科 설치의 기운이 익어가던 때였으므로 자료의 발굴과 보존이 절실히 요청되던 때였다. 同人會는 그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보존하는데 뜻을 같이하여 설립되었으며 많은 학도들이 여기에 참여하여 「考古美術」誌에는 속속 새로운 자료가 소개되었다. 그중에는 매우 주목되는 자료도 있었으나 유적이거나 유물의 보호 보존을 담당하는 정부의 관계기관이나 일반학계에서는 아무도 큰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개된 자료가 수년 후에야 국보나 보물 등의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사례로도 짐작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同人會의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것이다.

자료보존이라는 절실한 요청은 考古學이나 美術史學이나 같았다. 따라서 초기의 「考古美術」誌에는 이 두 분야의 자료가 모두 실려있다. 지금 고고학자로 행세하는 학도들이 당시는 미술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계자료를 제공하는가 하면 미술사학자로 행세하는 학도가 고고학적인 발굴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1960년대 전반기까지 지속되었으니 두 분야가 분화되지 못한데서 기인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同人會의 두번째 특색이라고도 할 수 있다.

考古學이나 美術史學을 막론하고 회원들이 경향의 각지를 열심히 답사하여 얻은 자료를 속속 보내왔고 그러한 자료들은 지체 없이 同人誌 「考古美術」에 게재 배부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한국일보사의 후원과 本同人會가 주관하여 수년에 걸쳐 실시된 新羅五岳과 新羅三山에 대한 종합조사였다. 이 조사는 지역도 넓고 기간도 길어서 전국적으로 수십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상당한 성과도 있어서 그때그때 중요한 내용이 同人誌에 실리게 되었다. 다만 약속과는 달리 종합적인 보고서가 발행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었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뿐 아니라 한편에서는 각종 문화재의 보수공사에 참여한 동인들이 보내오는 현지통신이 있었다. 서울南大門·金山寺彌勒殿·雙峯寺大雄殿·法住寺捌相殿·麗水鎮南館 등의 해체보수의 과정을 그때그때 알리는 내용 등이 있었으나 그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17회에 걸친 慶州石窟庵 해체보수에 관한 통신이었다.

당시 험기왕성하던 동인들의 정열적인 자세와 思考 또한 엿보였으니 1966년 9월 佛國寺三層石塔의 舍利莊嚴具 도난미수사건이 일어나자 舍利盜取로 인해 생긴 이 탑의 변형이 지진과 풍화의 결과라는 일부의 해괴한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同人會의 이름으로 발표한 일은 기억할 만하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일은 자료집의 발간이었다. 자료집은 1973년까지 22집을 간행하였다.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어느 것이나 자료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중에는 매우 중요한 것도 있어서 지금도 참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자료보존의 작업은 「考古美術」誌의 지령이 100호의 이르던 1968년 11월까지 매월 빠지지 않고 지속되었는데 그 이후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이때까지의 기간을 韓國美術史學會史의 제1기로 구분할 만하다. 이미 老境에 접어든 창설동인의 안목으로 돌이켜

보면 많은 곡절을 거쳐왔지만 향수같이 떠오르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 하나는 同人誌 발간의 자금조달이다. 同人會를 창설하고 同人誌를 발간할 때 자금은 한 푼도 없었다. 따라서 매월 거르지 않고 발간하던 발간비, 창간 당시 발행하던 100부 1회분 5천원을 구하느라 매번 동분서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로는 뜻밖의 후원도 받았고 때로는 거절도 당했으나 수년이 지난 후 黃濶克씨의 도합 100만원 희사는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다음은 100호까지를 프린트로 발간하였다는 일이다. 편집·원지필경·원지교정·인쇄·제본·사진붙이기·발송의 작업이 매월 되풀이되었고 처음에는 이곳저곳 프린트사를 옮겨다니고 사진붙이기·발송의 작업도 번번이 주로 창간동인의 집을 옮겨다녔으나 얼마 후부터는 한국은행의 전속 프린트소에서 일하던 黃允默씨가 전담하였고 이 일을 주선하고 가까이서 도와주던 당시의 한국은행간부였던 張衡植씨의 노고가 컸다.

다음은 사진붙이기와 발송이다. 사진은 원판을 인화해서 비워놓은 자리에 일일히 붙이게 하였다. 많을 때는 한호에 천매가 넘는 사진을 붙여야 했다. 8년여 매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붙이던 광경은 어찌 보면 동지적이라고도 하겠으나 지금 보면 원시적인 작업이었으니 전환기에 임하면서도 이 번거로운 작업을 100호까지 지속하기로 고집하던 심경 또한 그러한 향수같은 것이 작용하였음을 숨길 수 없다. 말하자면 시대의 변화발전에 따르지 않고 구체제를 고집하였음은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왔던 동인들로서는 당연한 심경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同人誌 月刊「考古美術」을 100호까지 프린트로 발간하던 8년여의 기간은 동호인들의 모임인 동인회가 그야말로「메모」를 원시적인 형식으로 기록 배포하였으나, 그「메모」들은 항상 신선하고 중요한 자료들이어서 호를 거듭할수록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메모」들은「메모」에 그쳤고 그 새로운 자료를 학술적으로 이용하는 데까지 발전시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말하자면 동호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

1968년 2월「考古美術同人會」는 드디어「韓國美術史學會」로 발돋움하였다. 새로 제정된 會則 제3조에는“本會는 1960년 8월 15일에 創立한 考古美術同人會를 發展的으로 改編한 것이며 그 事業을 繼承한다”라고 하여 그 성격과 목표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本會는 韓國을 비롯한 各地域의 美術에 관한 研究를 目的으로 한다”라고 하여 그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 제2항에는“學報「考古美術」 및 韓國美術에 關한 圖書의 刊行”이라고 하여 同人誌는 學報로서 존속시켰다. 同人會에서의 일대전환이라고 하겠다.

學會로의 전환을 결의한 당시의 同人誌「考古美術」은 제9권 제2호, 통권 91호를 발간했을 때였다. 어찌하여 이 시점에서 전환을 단행했는지는 지금 분명히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동기는 同人誌의 지령이 100호에 가까워졌고 이에 대한 일종의 금지와 자신이 싹텄을 뿐 아니라 學界의 동향이 同人會가 아닌 學會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판단이었고 더우기 이에 앞서 1967

년 2월에 있었던 考古學會의 창립이 자극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여하튼 學會로서의 전환을 이룩하면서 몇 가지 약속이 있었다.

첫째 同人誌는 學會誌로서 活字로 찍되 100호까지는 현재대로 프린트로 찍어서 사진을 붙이기로 하였다. 100이라는 수까지 채워서 기념비적인 존재로 만들자는 생각이었지만 보수성 또한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점은 뒤에서 언급하듯이 考古學과의 분리를 염두에 두면서도 「考古美術」이라는 題號를 버리지 않으려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앞서 말한 考古學과의 분리이다. 考古美術同人會가 창설될 무렵에는 考古學을 전공하는 많은 학도들이 評議員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지만 韓國美術史學會로 전환할 무렵에는 考古學會가 이미 결성되었고 考古學 전공자가 美術史分野에 관여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서 각자의 색채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考古學과 美術史學은 학문적인 인접성이 많아서 자연 考古學의 인시각으로서의 언급이 불가피할 때가 있었으면서도 분리현상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져 갔다.

다음으로 學會誌는 101호부터 活字 인쇄로 전환함과 동시에 논문위주로 체제를 바꾸고 100호까지에서 주요내용이 되었던 자료는 資料欄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100호까지 끌고 가는 과정에서 100호에 가까워지면서 차츰 자료와 함께 이에 관한 약간의 논고를 가하는 정도의 논문이 실리기도 하였으나 101호부터는 완전히 논문체제로 바꾸어 명실 공히 學會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약속 이행에서 「考古美術」誌의 외형상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學會로서의 활동도 서서히 활발해졌지만 비판을 받아야할 점 또한 없지 않았다. 회칙 제5조에 의하면 學會가 하는 사업으로 연구발표회와 강연회가 포함되어 있어서 學會로 전환하면서 전에없이 연구발표가 활발해졌고 강연회도 있었던 점은 전환에 상부하는 발전이었다. 연구발표회는 1968년 11월 16일 100호 발간을 기념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관내 회의실에서 있었던 100호발간을 기념하는 창간동인 3인(崔淳雨·黃壽永·秦弘燮)의 연구발표가 그 시작이었다. 『考古美術』 101호 彙報欄에는 第1回研究發表會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 후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70년 4월 25일부터는 한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갖기로 하여 월례발표회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발표회는 1971년 6월까지 11회를 계속하였으나 그 이후 역시 중단되었다가 1980년 12월 제12회로 다시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월례발표회는 학회활동의 핵심이어서 學徒들의 연구의욕의 고취와 연구활동의 깊고 얕음을 가늠하는 관건이 되는 만큼 그 내용의 충실이 요청됨은 물론이었는데도 초기에는 자료소개에 그쳤던 감이 없지 않다.

본학회 자체가 주최한 월례발표회 이외에도 전국역사학대회에서의 考古學과 美術史분야의 발표에 관한 일은 본학회가 전담하였고, 1975년에 열린 제18회대회부터는 본학회도 대회를 주최하는 여러 학회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비로소 대회를 주관하면서 국내 우수 학회와 동열에 서게 되었다.

월례발표회가 중단된지 수년만인 1979년 12월 美術史學大會라는 이름으로 연구발표회를 가지게 되었다. 아마도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자극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형태로의 발전

을 기약하면서 개최되었다. 「1980年代 韓國美術史의 方向」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彫刻·工藝·建築·繪畫의 각 분야에서 1명씩의 발표와 함께 오후에는 토론이 있어서 한층 진전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발표회에 「第1回」라는 순차를 표시한 점을 보면 이러한 발표회가 앞으로 계속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이나 제2회 대회는 1981년 4월에야 열렸다. 제2회 대회 때는 초점을 회화에 맞추어 중점적인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니 일보 진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아마도 앞으로 분야별 발표를 지향하는 의도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더우기 주목되는 점은 全南大學校에서도 발표에 참가하여 美術史學會의 지방으로의 확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이 제2회 대회를 끝내면서 제3회 대회를 가을에 열 것을 약속하였으나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점은 학회의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연구발표회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일은 외국인의 초청이었다. 초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비용을 전담하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내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던지 별도의 용무가 있어서 내한한 기회에 강연을 요청하는 정도였으나 이들 인사들은 쾌히 응락하였던 것이다. 외국인이라야 일본인들이었고 일정 때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미술연구에 관여하였거나 한국미술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일본인 학자들이었다. 일정시 총독부박물관에 있던 有光教一, 扶餘에 있으면서 많은 백제 유적의 발굴에 종사하던 藤澤一夫, 京城帝大 美術史研究室에 있던 中吉功, 동양도자연구의 대가인 小山富士夫 등이었다.

同人會가 學會로 발돋움하고 월례발표회가 정기적으로 열려 의욕에 차있던 당시 또 한 가지 그야말로 의욕적인 행사가 있었으니 大邱支會의 발족이었다. 10주년을 기념하여 1970년 6월 大邱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어 大邱支會를 결성한 다음 당시 경북대학교 박물관장이던 金英夏교수를 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는 실로 획기적 발전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학회중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대학에 미술사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미술사를 전공하는 전문학도도 없는 실정하에서는 지회의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워서 지회로서의 활동은 거의 없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사실조차도 기억에서 사라져가게 되었다.

그동안의 學會誌 『考古美術』의 간행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學會 會則 제4조에는 “本學會는 韓國을 비롯한 各地域의 美術에 관한 研究” 운운하여 本學會의 연구대상이 韓國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검토가 따랐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즉 韓國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제도상의 길을 터놓는 일이었지만 韓國 이외 지역의 미술을 전공하는 학도가 적어서 겨우 中國관계 논문이 실리게 되었지만 여하튼 일보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편집면에서 눈에 띄는 점이 특집호와 합집호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일이 1982년 이후 연년이 받아들인 문교부의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한 연구논문집이었다. 그 분량은 많을 때는 200페이지, 적을 때는 100페이지 정도였는데 첫번째 논문집의 경우 200페이지를 합집호 아닌 단일호로 발간하였을 뿐 그 후부터는 예외 없이 합집호로 발간하였다. 심지어 50페이지 미만의 적은 분량도 합집호로 발간한 경우가 있었으니 이것은 내용의 비중보다는 원고부족에

기인하였던 것이다.

특집호와 관련하여 한 가지 유감으로 생각되는 점은 「澗松追悼號」, 「南雲二周忌」, 「然齋古稀」, 「又玄三十周忌」등의 특징인 즉 창간동인에 관한 합집특집호를 발간하면서, 1984년 12월에 별세한 崔淳雨창간동인에 관하여 學會로서 애도의 뜻의 표시 내지는 특집호의 발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4.

이 무렵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으니 學會 회장의 세대교체였다. 1970년대까지는 나이 60이 넘는 창간동인이 교대로 회장직을 맡아왔으나 1982년 새로 회장을 선출할 때 60이 넘는 창립동인4인이 모두 후퇴하기로 하고 다음 세대인 鄭永鎬를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다음은 孟仁在로 이어졌다. 세대의 교체는 연령층이 분명히 젊어졌다는 그러한 단순한 물리적 변화뿐 아니라 활기있는 청신한 새출발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간부도 동인회 때부터 깊이 참여하였던 터이어서 체질적으로 후퇴한 창간동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서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상 1988년 새로운 임원진에게 학회운영이 맡겨지기 전까지는 學會誌 101호부터의 활자화와 논문 위주의 편집체제의 유지 그리고 20년동안 회지 발간과 월례발표를 계속하면서 지내왔고 1982년 학회 활성화를 위한 변화가 있었지만 거의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려온, 말하자면 보수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틀에 박힌 일만을 되풀이해 왔고 학술단체로서의 인정을 받으면서도 또한 韓國의 각 학회가 겪는 빈곤함에서 벗어남이 없이 시간이 흘렀다. 더우기 考古學會의 다양한 활동, 특히 모든 토목공사에 앞서서 해당지역의 지하유구의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부시책에 따르는 각 대학에서의 발굴 참가, 이에 자극되는 바도 있어 각 대학에서의 考古學科 설치, 발굴의 결과 지하에서 발견되는 진귀한 유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 아울러 先史遺物을 근거로 하는 上古史영역에 관한 활발한 토론 등 관심은 考古學으로 쏠리고 반면 美術史學은 위축되어 있던 감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이 기간을 나는 韓國美術史學會 行程의 第2期로 보고자 한다.

5.

1988년 4월이후 임원진들이 새로 선임되자 몇 가지 큰 변혁을 일으키면서 學會가 운영되었다.

첫째의 변혁은 學會誌의 편집에 관해서이다. 창간 이래 30년간 지켜오던 세로쓰기를 시대의 조류에 따라 가로쓰기로 고친 일과 역시 창간 이래 계속하던 문화재위원회 회의내용의 게재를 없애고 대신 書評란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學會誌로서의 체제가 정돈된 셈이며 신선미가 풍긴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1988년의 춘계호부터 실천에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學會誌가 모두 가로쓰기로 간행되고 있고 또 가로쓰기의 이점도 있어서 가로쓰기로의 전환이 수긍되는 바가 있다. 문화재위원회 회의내용의 게재는 1960년대에는 그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 후 문화재관리국 자체에서 각 분과의 회의 내용이 종합 출간되어 우리가 게재할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였다. 더우기 어떤 호에서는 약80%에 해당하는 분량을 이를 위해 할애하였음은 너무 심했던 감이 있다.

다음은 1989년 총회에서 法人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여 그 해 10월 문화공보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을 마쳐서 社團法人 韓國美術史學會가 되었다. 우리나라 학술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외부로부터의 후원을 받는데 유리하게 되고 재산을 소유하고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큰 진기가 아닐 수 없다.

셋째로 學會의 명의로 고유의 자기 사무실을 가지게 된 점이다. 學會의 기구가 법인체로 되면서 그 동안 푼푼이 저축해온 기금으로 자체의 사무실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30년동안 회장이 교대될 때마다 藏書를 비롯하여 연락처가 바뀌어 대외연락의 일체가 변경되어 적지않은 혼란을 초래하던 번거로움을 면하게 되었다. 아마도 우리나라 學會로서는 초유의 일일 것이다.

넷째로 제188호(1990.12)부터는 30년동안 지켜오던 『考古美術』이라는 學會誌의 제호를 『美術史學研究』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로 고쳤다. 考古學과의 분리를 의미 함과 동시에 「韓國」의 두 자를 떼어서 외국미술에 관해서도 연구분야에 포함시킨다는 의사의 표시였다. 한국이의 지역의 미술에 관한 연구를 지향하는 원칙은 이미 學會로의 전환 당시 명시한 바이고 考古學의 분리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考古」의 두 자를 떼지 못하고 이 시점까지 왔음은 역시 전통이라는 용어로 윤색된 보수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대두되는 문제가 題字를 새로 정하는 일이다. 어떤 형태의 題字를 정했는지 아직 듣지 못하였으나 이 문제의 검토는 정회원의 일원인 金禧庚선생에게 위임하였다고 한다. 끝으로 忍冬文을 주로 한 學會마크의 제정도 침언할만 하다.

일찌기 弘益大學校와 梨花女子大學校의 大學院에 美術史學科가 설치되었고 서울大學校를 비롯하여 考古學과 함께 美術史學을 전공하는 考古美術史學科를 학부에 설치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어 전공학도가 속속 배출될 것은 필연의 사실이다. 그 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東垣學術基金으로 운영되는 韓國考古美術研究所를 비롯하여 韓國美術史教育研究會, 韓國美術史研究所, 등 시각을 달리하거나 내지는 韓國梵鐘研究會, 韓國陶磁史研究會 같은 分野別 研究會가 分立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동서양관계 美術史分野에서도 예상되는 바이므로 韓國美術史學會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보존으로서 同人會의 역할은 이미 끝났지만 그 근본방향은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세계의 전개에 따르는 새 지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本學會는 이제 앞으로 고정 사무실을 소유하여 안정된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발전을 향하여 앞으로는 새로운 영양분을 축적하면서 구각을 벗어 버리는 일은 자연스러운 순서일 것이다. 앞으로 韓國美術史學會 제3기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지난 과정을 회고하면서 30년동안 고락을 같이 한 同人들에 대하여 지나친 비판이 없지 않았을 것을 염려하면서 창립 30주년기념 학술대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유감으로 생각된다. 이 대회 내용에 대한 소감의 일단, 즉 대회 발표자를 각 분야의 신진학도중에서 선발하여 객관적인 과거의 평가와 앞으로의 진로에 관하여 의욕적이고 활기에 찬 제시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으나 발표요지를 통해서 보면 총체적으로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는 솔직한 느낌을 피력하고 이 글을 끝맺을까 한다.

(1991. 1. 15)